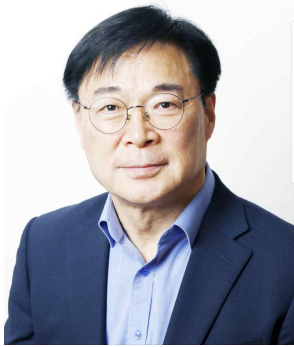


# 취 임 사

조합원사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불편함이 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제 발전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애정의 마음으로 2021년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저에게 오늘 조합 제9대 이사장의 증책을 맡겨주신 대표님들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제의 발전적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조합 이사장의 역할과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에 부족한 저의 능력이지만 혼신을 다해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우리업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신 박무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의 치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헌신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존경하는 조합원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저는 조합 제9대 이사장으로 조합 임직원과 함께 우리 자원순환에너지업계의 국가기반시설 인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공익사업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다지겠습니다.**

우리업계는 자원순환에너지 산업의 총아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사태인 재활용 방치폐기물과 코로나19 폐기물, 수해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 일익을 하며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쌓아 국가기반시설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역할 증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상담창구 개설 등으로 소통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폐기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 **둘째, 업계가 당면한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폐기물처리업 겸업 정비」, 「소각열 재활용 법제화」, 「폐토사·불연물 사전분리」, 「발열량 재산정을 통한 처리 능력 확대」, 「130% 처리능력 적용기준 현실화」, 「음폐수 약품 보조제 재활용」 등 업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을 실시간 발굴하고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소통하여 목표한 제도 개선을 실현시키는 한편 업계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업계 위상에 맞게 조합의 전문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업계의 위상과 함께 조합에 요구되는 특화된 전문조직 배양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 임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주지시키고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기존인력 육성과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조합원사와 업계의 발전과 도약을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주민 친화시설로 업제 이미지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우리 업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민 친화 시설로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폐기물 소각업의 친환경 처리시설로서 이미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재활용의 순기능과 중요성을 주지시켜, 주민 친화시설 및 기반시설로서의 업제 이미지를 높이고 소각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소각·매립업제를 아우르는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매립협회 초대 회장직을 역임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소각, 매립업제의 공통 현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우르며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친애하는 조합원사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자원순환 에너지업제의 대표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조합원사 여러분들의 뜻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3년 동안 조합은 '모든 회원사들이 우리 회사 같은 조합으로 인식되고 여러분들의 발이 되는 조합' 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에너지 산업으로 변화·발전해가는 우리업체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업체의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국가 기반시설인 동시에 자원순환에너지 기업으로 인정받는 우리 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순환 에너지 공제조합 발전의 원천은 조합원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며 취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9대 이사장 이인석배상